

비상계엄과 교사 시국선언

교육의향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의 권한과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법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사태를 초래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해산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한 명백한 친위 쿠데타였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 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난입한 사건을 국민들은 뜬눈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역사적으로 44년만의 폭거였다. 소름 끼치고 살 떨리는 비상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은 아연 실색 공포를 느꼈다. 다행히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어 천만다행이다.

이에 비정상적의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졌다. 교사들도 더 이상 정의

를 가르칠 수 없다는 판단에 시국선언에 나섰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안위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 좌시할 수 없어 정치적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시국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시국선언 전문을 인용한다.

민주주의라는 교실이 무너졌다. 학생들에게 이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교실과 같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정부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총칼로 국회를 난자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교실을 무너뜨렸다. 분노한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와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해 최악의 사태는 막았으나,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이며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반헌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이 어찌서 여전히 대통령인지 학생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교사로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그저 이주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비통하며, 진작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못한 어른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나라에서, 교사들은 더 이상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

폭력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뿐이다. 계엄은 군사독재 정권이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수단이다. 지난 44년 간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폭력이 아닌 평화에 기반한 권력 분립과 민주화 정신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어떤 폭력으로도 국민을 이끌 수 없으며, 계엄 선포는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뿐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통령으로서 남발하는 그 권리 또한 국민이 부여한 것이며,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 대통령을 거부하고 권리를 박탈할 것이다.

교사들은 침묵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다. 우리 교사들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격언을 가슴에 새기며, 윤석열 즉각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시국선언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탄압해도, 교사들은 침묵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를 취한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겁박하고, 중복 세력을 적결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나라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교사 시국선언문)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리고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그것만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社說

상식과 이성적 결단으로 헌법 되찾아야

위헌적 발상 또 다른 혼란 안대

8일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헌법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도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행사하면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부결은 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의 혼돈을 가져온 주역이나 마찬가지다. 모두가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개혁에 나설 때다.

이날 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 대표가 대통령의 사퇴시기를 정한다는 것은 헌법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했다.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권한을 위임받는 길도 헌법이 정한 절차뿐이라는 게 강 시장의 주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들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두 사람이 합의한다고 일본, 일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육군특수전사령관은 707특임단의 이동 상황을 묻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수도방위사령관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가 다시 국정을 주도하는 것은 강 시장의 주장처럼 헌법을 교란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여론의 압박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은 한 대표의 결정도 중대한 오판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

계엄사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는 물론이고 외교와 경제도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또 다시 헌법을 무시한 위헌적 발상으로 예측 불허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지금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결단이다.

탄핵표결 무산 국회, 국민 분노 못 읽나

표결 불참은 국민 배신 행위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표결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쏟아졌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안철수 의원과 보좌관의 도움을 받고 모습을 드러낸 김예지 의원, 뒤늦게 달려온 김상욱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듭 투표 독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했다.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전국 각지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국민들은 전광판과 휴대전화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결국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 폐기

선언을 한 순간에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일제히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당시 탄핵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등이 국정에 개입해 각종 불법을 저지른 잡범 행위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의 비(非)전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한 권력남용이며, 특전사를 활용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시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

국민 모두가 12월 3일 밤 숨죽이며 모든 상황을 지켜본 증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안을 부결한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들끓고 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 모여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윤 대통령과 부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의 힘 역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하야타트하리르알삼(시리아해방기구)이 주도하는 시리아 반군은 수도 다마스쿠스 점령을 발표하며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도피했다고 8일(현지시각) 밝혔다. 사진은 한 소년이 7일(현지시각) 시리아 하마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전임자인 그의 부친 하페즈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사진을 밟고 서 있는 모습.

AP/뉴시스

서석대

주말 내내, 정확히는 지난 3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뉴스를 봤다. 이미 보도됐던 일들이 계속해서 스크린을 채우고, 믿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도는데도 차마 화면을 끄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7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되는 순간을 목도했다. 며칠 내내 느꼈던 원인모를 우울과 분노는 더욱 더 깊어졌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희망에 대해 생각하기로 한다.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자신의 책 '희망의 원리'를 통해 희망을 다섯 가지로 정의한다.

블로흐에 따르면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살며,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희망은 힘이며,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삶을 포기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극복하게 된다. 희망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며,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약속해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희망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구절을 천천히 되뇌어본다. 블로흐는 희망은 저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희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실을 수



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인간은 '보다 나은 가능한 삶'에 대한 희망을 통해 현실의 억압적 조건에서 기인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려움을 피하는 대신 직면하며 이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망이 가진 힘이다.

어쩌면 우리는 희망을 잠시 포기하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계속된 비합리성과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희망 대신 포기, 상대를 이해해보려는 시도 대신 오해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누가 문제인지 손가락질 하는데 집중하는 일들이 반복됐으니까.

하지만 1980년 광주 전남도청 앞, 2016년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우리가 배운 희망의 불씨가 올해 다시금 타오를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쓰러져간 많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던 희망 위에서 우뚝 서 또 다른 희망을 외치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을. 희망을 지키기 위해 함께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크나큰 위로가 된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12월3일 이후 국민들이 바라던 단 하나의 소망이, 희망이 선물로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래본다. 14일 서울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에 희망이 깃들기를.

오지현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